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9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미 사 성 가	입 당 (34)	봉 헌 (220)	성 체 (160)	파 견 (54)
---------	----------	-----------	-----------	----------

입 당 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예제 34,11-12.15-17

화 답 송 | 시편 23(22),1-2 7.2 ㄴ-3.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 마태 25,31-46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6	유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3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10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7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19	\$177	\$80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1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1/25	손 아놀드/ 손 쟸마
10/28	장 글라라/ 이 데레사	12/2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11/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9	이 글라라/ 김 글라라
11/11	오 베드로/ 오 루시아	12/16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11/18	김 마론/ 최 마태오	12/23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삶

김성면 루카 -가수-

제 신앙의 모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머니의 외삼촌이신 최민순 신부님은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셨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비롯한 다수의 번역서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최민순 신부님은 성인들의 영성에 관심을 보이셨고 ‘주의기도’, ‘대영광송’ 등 기도문을 번역했고 성가를 작사하셨을 만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던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 성당에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른들 종교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태어났을 적에 어머니는 몰래 당산 동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친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나서야 성당을 찾았습니다. 웬지 하느님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화를 하듯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성령세미나 미사에 참석하였을 적에 우연히 말씀사탕을 뽑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시편 32,8)라는 말씀이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부를 때마다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십니까’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멀리했을 때조차 저를 이끌어주셨다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

이번 임원회의는 12/10/17 오후 7시에 사제관에서 있겠습니다. 임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30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의무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8일(금) 오후 6시 미사 (스페인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12/15 6:30PM)

12/15 6:30PM 전홍식 요아킴 신부님과 어린이 합창단의 성탄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티켓은 \$10이며, 17세 이하는 무료 관람입니다. 구매 문의: 이요한 총무님.

공동체 전체 봉사자 저녁만찬 12월 22일(금) 오후 5시

San Clemente 전체 봉사자를 위한 저녁만찬이 있습니다.

대림기간 판공성사

정해지는 대로 신부님이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새미사경본 안내 미사 경본의 한국어 번역상 일부분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주례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는 “어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로, “하느님의 어린양” 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사이에는 “배필이신 성 요셉과” 라는 부분이 삽입된다.

지었습니다.”(루카 15,21) 그리고 혼란에 빠질 때마다 성령께 바치는 기도문을 외었습니다. “성령님, 흘러넘치는 은총의 보고여, 저를 가르치시어 고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 앞에서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좋은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저의 어두운 내면은 더욱 감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중 청년 성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솔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저는 참된 공동체 의미를 깨달았고 가난한 마음도 나누면 풍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겪는 고통도 하느님이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욥 5,18)

그러니 우리는 진솔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이 저희를 돌보시고 가르치실 테니까요.

<서울주보에서>

고행은 참된 인간을 만듭니다.

-바오로 6세 교황-